

## 우리나라의 單獨家口實態에 관한 小考

裴花玉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目次》

- |               |                |
|---------------|----------------|
| I. 序 論        | IV. 單獨家口の 形成要因 |
| II. 研究資料 및 方法 | V. 要約 및 結論     |
| III. 單獨家口の 實態 |                |

### I. 序 論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은 효과적인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로 급격한 출산력 저하와 인구증가율의 저하를 경험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수반되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가족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많은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어 지고, 평균 가구원수는 감소되면서 절대 가구수는 늘어났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비전통적 가구도 발현하였는데, 특히 단독가구나 비혈연 개인들로 구성된 가구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확대가족제도에서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가

지, 어떤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도 부모와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경제적 발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에 편승하여 결혼전 학업과 직장을 취득하고자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 '혼자' 혹은 '두셋이 어울려'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전통적 가구형태를 와해 시키면서 비전통적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의 증가는 독신생활에 대한 선택성향의 증가와 독신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줄어든 탓임을 몇몇 연구들이 보여준다(AGI, 1982; Stein, 1988; Christian, 1989).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독신생활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지만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등 과도기적 가구형태가 증가하

주거 생활공동체로 대개의 경우 혈연을 기초로 하되 혈연이 아니더라도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을 포함해서 고용인, 하숙생, 친구와 같이 비혈연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혈연관계를 기초로 법적, 규범적으로 분가되지 않은 가족원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타지에 취업, 유학등을 위해서 별거형태를 이루는 경우도 가족으로 취급된다. 통계청에서 내린 가구의 정의를 인용하여 가구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1992: 9-10).

#### 일반가구

- (1) 혈연가구: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2)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친구 또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집단가구

- (1) 집단시설가구: 혈연 관계가 없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 시설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 (2)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혈연 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가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혈연을 기준으로 혈연가구와 비혈연가구로 나누고, 비혈연가구는 다시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단독가구와 다수 비혈연 가구로 대별된다. 혈연가구는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이므로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적 의미를 지니지만 비혈연가구는 주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가구는 비혈연가구처럼 주거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가 아니고 가족구성원과 가구구성원의 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혈연가구와 비혈연가구 구성사이의 과도기적 가구형태 라고 말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정의상 가족중에서 분가하여 1인이 가구를 형성하는 형태이므로 단독가구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센서스나 출산력조사 같은 가구단위를 기초로 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센서스나 출산력조사의 경우 가구단위는 사실계수(de facto enumeration) 접근법이 가능하지만 가족 단위는 법률계수(de jure enumeration) 접근법에 해당되므로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를 구성하는 장기 출타 가족원이나 세대주 전출만 하고 같이 동거하는 가족원의 계수는 누락이나 중복의 여지가 있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계수를 기반으로 하는 출산력 조사와 센서스 자료가 이용된다.

## 2. 단독가구 실태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된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단독가구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 이후 현재까지 단독가구의 절대적인 수 뿐만 아니라 비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5퍼센트 이하에 머물던 단독가구의 비율이 1990년도에는 9.0퍼센트에 이르러 총 11,354,540 가구중 1,021,481가구가 단독가구로 구성 되어 있으며 1995년에는 15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 1992).

그러나 일본의 단독가구의 총수와 비율은 1975년 이전부터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1970년 20.3퍼센트; 일본통계국, 1991: 47-48). 1980년에 기숙사나 공동주거에 사는 단독가구를 다 포함하였을 때 20퍼센트에 달하고(일본통계국, 1991: 48) 순수 단독가구만의 비율도 1988년에 15퍼센트를 상회

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연령과 요인에 따라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앞서도 말했듯이 젊은 미혼층의 단독가구 혹은 비혈연가구의 구성은 주로 학업 및 직장 이동이 원인이 되며 전체 단독 가구와 비혈연 가구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장년층의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구성은 이혼, 별거, 그리고 사별과 같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와해로 인하여 대다수 발생한다. 이는 주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초래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단독가구의 또다른 연령층을 구성하는 것은 노인가구이다. 노인단독가구는 노인문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발달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에게서 별거, 유리되어 형성된 노인단독가구는 선택성향이 뚜렷한 미혼단독가구에 비해 오히려 사회복지적 문제를 병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제고는 노인문제 접근법을 가지고 사회복지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고, 비록 학업과 직장의 이동에 따라 이주를 하면서도 가족으로부터 법적으로 분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파악은 어려우며 따라서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의 결정요인 및 증가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인구구조, 가구형성, 가족와해등이 선진국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단독가구에 초점을 두어 실태를 파악하여 보는 것이 앞으로의 인구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로 쓰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II. 研究資料 및 方法

본 연구는 단독가구의 기본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5년, 1991년에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전실태 조사>의 조사대상가구를 활용하였으며, 1985년도와 1990년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또한 단독가구의 형성요인 및 증가요인은 1990년에 실시된 <한국 가족기능 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상기의 출산력조사는 기혼부인의 결혼, 성, 출산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조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실태를 분석하는데는 필요한 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으며 또한 통계학적 신뢰도에도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센서스 자료는 특정한 시점에 구성되는 단독가구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출산력 조사자료는 일정한 관찰기간 누적된 단독가구의 수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가족기능연구조사 역시 단독가구만을 위하여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의 두번째 목적인 형성요인과 증가요인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덧붙여 현재 선진국에서는 단독가구의 증가가 뚜렷하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이 틀리고 타당성 있는 비교 기준이 없어 절대적인 국제비교가 어려웠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자료를 제표화하여 백분율, 비율 등의 기초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분석결과를 전개할 때에는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I. 單獨家口의 實態

### 1. 개념정의

단독가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먼저 가구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구분이 필요하다. 가족은 혈연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가구'라 함은

표 1.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단독가구의 비율

	Korea		Japan	
	Total house- holds(000)	One person households(%)	Total house- holds(000)	One person households(%)
1975	6,648	4.2 <sup>1)</sup>	32,877	11.4 <sup>3)</sup>
1980	7,969	4.8 <sup>1)</sup>	35,338	13.5 <sup>3)</sup>
1985	9,571	6.9 <sup>1)</sup>	37,226	14.0 <sup>3)</sup>
1988	—	—	39,028	15.4 <sup>3)</sup>
1990	11,355	9.0 <sup>2)</sup>	—	—

Data : 1) NSO, Social Indicators in Korea, p.294.

2) NSO,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Vol.1, 1992, p.342.

3) SID/WASA(후생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후생통계협회),

National Household Survey(국민생활기초조사), 1988, p.29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발달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편승된 인구학적 동향을 엿보게 한다.

일본의 단독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24세에 단독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저하하다가 50-54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부터 재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고령층(65-74세), 후기고령층(75세 이상)에 달하면 단독가구의 비율은 예상과 달리 10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든다(일본인구문제연구소, 1992:13-17). 이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인해 제도적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순수 단독가구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이 다음에 분석되는 한국의 연령별 단독가구 분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85년도 1991년도 출산력조사 자료에 의하면 단독가구의 비율은 센서스 자료에 비해 증가율이 조금 낮게 나타난다. 센서스 자료에서는 1985년에 전체가구의 6.9퍼센트였던 단독가구의 비율이 1990년에 9.0퍼센트까지 증가한

반면에, 출산력조사에서는 전체 조사가구 가운데 7.2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85년에 조사된 전체 7,449가구중 7.2퍼센트인 536가구가 단독가구이며 1991년에는 조사된 전체 11,540가구중에서 8.0퍼센트인 923가구가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센서스와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단독가구의 증가율의 차이는 우선 센서스와 표본조사가 지니는 통계학적 차이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센서스가 사실상 계수 접근법을 이용한 전수조사인 반면에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되어 자료가 처리되기 때문에 표본오차를 지니게 된다. 특히 출산력 조사는 가구를 표본단위로 하지 않고 가입여성을 표본단위로 하여 시부와 군부의 인구에 비례하여 가중치를 주는 까닭에 가구조사에 대한 표본 오차를 증가시킨다고 생각된다.

또하나 단독가구의 특성상 여타 가구에 비해 형성 및 소멸의 변동율이 심해 조사시점에 따라 비율의 증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단독가구의 비

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되리라 본다. 출산력 조사에서 추출된 단독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빌려 단독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조사 기간 동안 남자단독가구의 비율은 줄어 든 반면에 여자단독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조사기간 동안 시부에서는 남자단독가구가 근소한 수치로 증가한 반면에 오히려 군부에서는 여자단독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젊은 연령층의 도시집중과 군부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성별사망률 차이로 인한 여자노인 단독가구의 확산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연령별로 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증명되는데 1985년에 시부에서는 15-24세 연령집단에서 단독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군부에

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1991년에 들어서는 그 비율과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91년도 시부에서 25-34 연령집단에서 단독가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34.9%).

조사자료에 의하면 1985년에 시부의 경우 특히 23세-27세 사이에서 단독가구비율이 가장 높고 군부에서는 15-16세와 62-66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단독가구의 비율이 밀집되어 있다. 1991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의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시부에서는 26-27세 사이에서 그리고 군부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조사기간 중 15-24세 연령집단에서 군부의 경우 비율이 급격히 저하된 것은 1985-1990년간 연령별 지역별 인구이동율과 상충하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985년 부터

표 2. 단독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985, 1991

(%)

	1985			1991		
	Urban	Rural	Whole	Urban	Rural	Whole
Sex						
Male	43.2	36.3	39.2	43.5	18.9	36.9
Female	56.8	63.7	60.8	56.5	81.1	63.1
Age						
- 14	0.4	0.3	0.4	0.1	0.0	0.1
15- 24	25.2	21.0	22.8	27.6	4.5	21.5
25- 34	31.1	8.0	17.5	34.9	9.7	28.2
35- 44	7.7	4.8	6.0	7.9	4.0	6.8
45- 54	8.1	11.5	10.1	4.9	6.9	.54
55- 64	14.0	29.3	22.9	10.9	23.5	14.3
65+	13.5	25.2	20.3	13.7	51.4	23.7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2)	(314)	(536)	(676)	(247)	(923)

1990년 사이 전체 전입률 (In-migration rate)과 전출률(Out-migration rate)는 12.7 퍼센트로 순이동률에는 차이가 없으나 서울을 비롯한 5대도시의 전입률이 14.9 퍼센트로 전출률 10.4 퍼센트 보다 훨씬 높고 이와 반대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타도의 전출률은 전입률 보다 증가하여 심하게는 4배까지 높다(통계청, 1992: 70-71).

한편 단독가구주의 평균연령증가는 최근 상승되고 있는 초혼연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남자의 초혼연령은 1985년 27.7세 에서 1990년 29.0세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동안 24.5세 에서 25.1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1). 그리고 이러한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이 타지역보다 도시에서 더욱 높음이 앞서의 논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연령별 단독가구의 특성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시부에서는 미혼단독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양대 연령 층이 U자 모양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군부에서는 노인연령층이 독보적으로 높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미혼단독가구 구성 비율은 성별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출산력 조사에 의하면 1980년에 25-29세의 남자미혼율은 45.2 퍼센트였으나 1990년에 57.3퍼센트로 증가하였고 35-39세에서는 1.7퍼센트에서 3.9 퍼센트 로까지 증가하였다. 1980년에 여자의 미혼율도 25-29세에서 14.1 퍼센트였던 것이 1990년에 21.8퍼센트로 증가하고 30-34세에서도 2.7퍼센트 에서 5.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특히 30세 이상 연령층의 미혼율의 증가는 양 조사기간중 미혼단독가구주의 연령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노인중에서도 가족과 분리되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단독가구 노인들은 노인문제

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단독가구노인의 수가 상당한 규모(노인인구의 20% 정도 추정)에 이르렀으며, 그 증가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학문적 연구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이가옥외, 1989b:12-13).

결혼상태별 단독가구의 비율은 지역별로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준다. 군부에서는 사별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고 시부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양조사 기간중 비율의 증가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표 3참조>. 1991년도 시부에서는 미혼 단독가구 비율이 64.9퍼센트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군부에서는 사별로 인한 단독가구 구성비율이 74.8퍼센트나 된다. 시부의 경우 이혼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양조사 기간중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 이혼이나 별거등 결혼제도의 와해와 단독가구 형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첨언한다.

단독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부의 경우 향상정도가 두드러져서 양 조사 기간중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단독가구의 구성비율은 44.2퍼센트에서 58.2퍼센트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오히려 국민학교졸업의 학력이 늘어남 양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교육받은 청장년층들의 이농현상으로 군부에서 저학력의 노인인구 비율이 커짐에 따라 평균학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의 상승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에 따른 전문직 여성들의 단독가구 형성, 소위 '독신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은 이 조사에서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표 3>에 의하면 1991년도 시부의 미혼율이 훨씬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단독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있는데

표 3. 단독가구의 사회적 특성; 1985, 1991

(%)

	1985			1991		
	Urban	Rural	Whole	Urban	Rural	Whole
Marital status						
marroed	6.3	8.0	7.3	0.3	2.2	0.9
Separated	3.6	1.9	2.6	3.3	3.7	3.4
Widowed	27.5	57.0	44.8	25.5	74.8	38.6
Divorced	4.1	3.2	3.5	5.7	2.9	5.0
Single	58.1	29.6	41.4	64.9	15.9	51.8
No answer	0.5	0.3	0.4	0.3	0.4	3.3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32.9	63.7	50.9	29.1	78.3	42.1
Middle	20.3	5.4	11.6	12.8	4.9	10.6
High	26.6	24.5	25.4	39.3	9.5	31.4
College <sup>+</sup>	17.6	6.1	10.8	18.9	6.9	15.7
No answer	2.7	0.3	1.3	—	0.4	0.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2)	(314)	(536)	(676)	(247)	(923)

평균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의 고학력 여성이 단독가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검증이 더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조사된 단독가구주의 주거형태는 시부에서는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주택에 사는 비율이 단연 우세하고 군부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다. 또 이러한 비율이 양 조사 기간중에 더욱 증가하였음이 보이고 있다. 1991년에 시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단독가구의 비율은 80.7퍼센트이고, 군부에서는 주택소유 비율이 65.6퍼센트나 된다<표 4 참조>.

이는 대도시에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이주하면서 값비싼 주거비와 주택난으로 인해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며 농촌에서는 단독가구의 연령별 구성층이 노인들이 많아 기

존에 소유하던 집에 그냥 살기 때문에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단독가구구성의 주종을 이루는 양대 연령층 즉, 25-34세 사이의 젊은 연령층은 주로 대도시의 전세나 월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농촌의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단독가구중 약 70퍼센트가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군부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30만원 이하로 단독가구주의 낮은 경제수준을 보여준다. 양 조사 기간중 월평균 생활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간동안의 물가나 인플레이션등의 경제지수를 고려할때 상기의 수치만으로 단독가구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월

표 4. 단독가구의 경제적 특성; 1985, 1991

(%)

	1985			1991		
	Urban	Rural	Whole	Urban	Rural	Whole
Housing						
Own	18.5	52.2	38.2	15.4	65.6	28.8
Deposit lease	32.4	6.1	17.0	41.2	10.2	32.9
Monthly rent	37.9	31.9	34.3	39.5	16.1	33.3
Relative	—	—	—	1.0	1.7	1.1
Company housing	0.9	5.1	3.4	0.9	1.1	1.0
Others	10.4	4.8	7.1	1.9	5.3	2.8
No answer	—	—	—	0.2	—	0.2
Monthly living cost (10,000won)						
—29	86.9	90.8	89.2	62.0	90.3	69.6
30—50	6.8	1.3	3.5	24.7	6.1	19.7
50—69	1.4	0.9	1.1	8.5	1.4	6.6
70—99	0.4	—	0.2	3.2	1.9	2.9
100+	0.4	—	0.2	1.3	0.3	1.0
No answer	4.1	7.0	5.8	0.3	—	0.2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2)	(314)	(536)	(676)	(247)	(923)

평균 생활비 지출이 30만원 이상의 비율은 시부에서 13.1퍼센트에서 38.0퍼센트로 세배 정도 증가되었다.

비록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월평균 생활비의 지역차이는 곧 도시·농촌간의 소득 및 소비 격차를 엿볼수 있게 한다. 특히 군부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의 저소득수준을 짐작케 하는데 노인의 저소득 문제는 결국 노인 빈곤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국가적인 복지시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991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단독가구의 직업은 시부에서는 단순·생산·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고(28.2%), 판매·서비스직이 다음이며

(20.7%), 무직과 사무직이 각각 약 13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군부에서는 농어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29.6%), 그다음 무직(24.0%)과 가사(16.9%)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전문·기술직의 경우 아주 미미한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부와 군부에서 그 비율은 비슷하지만 실수는 시부가 훨씬 높다. 그러나 1990년 도시인구의 비율이 74퍼센트(통계청, 1991)임을 고려하면 이같은 결과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단독가구의 직업별 분포에 비추어 보면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집중과 이농현상의 발현, 즉



표 5. 단독가구의 직업별 분포; 1991

	Urban areas	Rural areas	Whole areas
Jobless	12.8	24.0	15.7
Professional/technical	4.1	3.4	3.9
Administration/Management	0.1	0.3	0.2
Clerical work	12.7	2.5	10.0
Sales/service	20.7	9.6	17.8
Agriculture/fishery	0.2	29.6	8.0
Production/manual labor	28.2	11.9	23.8
Housekeeping	11.7	16.9	13.1
Student	8.8	1.0	6.7
Soldier	0.4	0.3	0.4
No answer	0.3	0.4	0.3
Total(N)	100.0(676)	100.0(247)	100.0(923)

3차산업에 발달에 따라 대도시에서 젊은 연령층의 생산·단순·노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 그리고 사무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단독가구주의 직종분포는 낮은 월평균 생활비 지출과 함께 단독가구들로 하여금 도시빈곤층을 형성할 여지를 주게 된다.

1991년도 조사된 923개 단독가구주에 대하여 분거이유를 물은 결과, 시부에서는 직장관계로 분거한 것이 단연 으뜸이며(296가구, 43.7%), 두번째로 높은 '비해당'은 가족구성원들의 결혼, 사별, 취업등의 이주로 인해 혼자 떨어져 남은 단독가구주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군부에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대다수의 노인단독가구 때문이라고 여겨진다<표 6참조>.

'부모가 원해서' 혹은 '본인이 혼자 살기 원해서', 그리고 '편리상'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으나 시부에서는 실수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군부에서는 '편리상' 혹은 '본인이 혼자 살기 원해서'와 같은 신세대적인 사고로 분거를 한 비율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 IV. 單獨家口의 形成要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인은 주로 도시화와 인구이동, 그리고 취업형태라고 분석된다. 다음은 단독가구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사회·경제지표의 변화를 간추려 본 것이다. 합계출산력은 지난 30여년 동안 1.6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평균 가족원수도 1990년에 3.6으로 낮아졌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져서 1990년 도시인구는 전 인구의 3/4을 차지하였고 2-3차산업의 비중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성들의 취학율과 취업율이 증가되었고 초혼연령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독가구 형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혼단독가구의 주된 형성요인은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진전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교육과

표 6. 단독가구의 분거이유; 1991

(%)

	Urban areas	Rural areas	Whole areas
Second child	6.1	5.1	5.9
Job	43.7	8.4	34.3
Education	8.2	1.0	6.3
Parents send child away	4.0	2.2	3.6
Hope to live alone	3.6	0.7	2.8
Convenience	0.6	—	0.4
Others	1.9	1.7	1.8
Left alone	31.8	80.4	44.7
No answer	0.1	0.4	0.2
Total(N)	100.0(676)	100.0(247)	100.0(923)

취업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고 있다. 1989년도의 <한국 가족기능 연구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타형'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미혼자들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수준으로 남자는 취업이나 취학을 위해서 여자는 취업을 위해서 분거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대로 단독가구의 특성별 구성에서 볼 때 1991년도 25-34세 연령층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생산·노무직이나 사무직종에 단독가구의 비율이 시부에서 높은 것과 일치한다.

분거 이유는 지역간 차이가 많아 농촌에서는 주로 취업이나 취학때문에 분거를 하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도 이러한 이유가 배제될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은 비교적 낮다. 즉, 생업을 위해서나 취학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 이농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농현상이 가족을 분화시키는데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가구원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평균 3.7명인데 반해 평균가족원수는 4.1명으로 약 12퍼센트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결과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들 12퍼센트의 가족은 독립된 가구형태를 이루게

나 다른 가족과의 동거나 기숙형태를 이루는 비혈연 가구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형태는 산업화에 따라 사회·경제구조가 다양화하면서 생존활동을 위해 주거형태의 변화를 촉진시킨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을 떠나 생존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분거형태를 취하고 이러한 분거는 다시 본가로 귀속을 이루기 보다는 독자적인 새로운 가구유형,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 연구진은 출타한 가족은 출타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새로운 정착을 모색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세권 외, 1992: 51-54).

최근 미혼율의 증가는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사고의 증가,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취업 및 취학을 위한 지역간 이동등을 이유로 독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독신생활의 지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편견이 잔재하고 있고 독신생활의 영위도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있지만 산업화에 따라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고, 남의 간섭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증가와, 생활의 간편화로 독신생

표 7. 관련 사회 경제지표

Indicators	1960	1970	1980	1990
Total Fertility Rate	6.0	4.5	2.7	1.6
Average No.of household members	5.6	5.2	4.6	3.6
Female mean age at first marriage	21.6	23.3	24.1	25.1
Urban population (%)	28	41	57	74
Primary industry (%)	66	51	34	20
Female educated over high school	35	62	78	85
Female employed (%)	25.1	37.2	40.5	46.2

Data : 1) NSO,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Year, 1963, 1972, 1982, 1992.

2) NSO,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91.

활의 불편이 감소되어 독신율을 높여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독신지향의 사고와 미혼율의 증가가 곧장 단독가구의 형성으로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요한다.

한편 노인단독가구의 형성은 취업이나 취학의 능동적인 분거행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 취업등 분거에 따라 유리, 잔존된 가구형태라 하겠다. 따라서 차별사망력으로 인하여 농촌에 여자노인단독가구가 많은 것도 이로서 설명된다. 노인가구의 연구조사(이가옥 외, 1989a: 46-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도에 조사된 15,632가구중 독신노인가구가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6.9%, 7.8%) 군부에서는 12.1%로 현저하게 높은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여자노인단독가구의 비율(전체 여자노인가구의 11.2%)이 남자보다(전체 남자노인가구의 2.3%)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까지의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특성과 요인을 밝혀낼 수 없었지만 이혼이나 별거등의 결혼제

도의 와해로 인해 형성되는 장년단독가구의 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개인주의 사고 발달, 전통적 규범의 변화에 따라 편승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0년 인구 센서스자료에 나타난 이혼율은 전체 결혼연령인구(15세 이상)가운데 0.5퍼센트 였으나 1990년도 센서스에서는 전체 결혼연령인구가운데 0.8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연령층은 40-44세 사이이고(2.0%), 20-24세 사이와 25-29세 사이의 이혼율도 각각 0.04퍼센트, 0.3퍼센트를 차지하여 점차 이혼율의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두지 않고 이혼을 할 경우는 곧장 단독가구 형성으로 종결된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외에도 배우자의 직장 이동 혹은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장년층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하나 장년단독가구 형성의 원인으로는 인구, 사회적 원인과는 별개지만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주택을 얻으려는 의도로 이혼하지 않고도 단일 세대주 전출을 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앞서 조사자료 분석에서 혼인상태별 단독가구의 분포에서 결혼상태에서 단독가구로 남는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V.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단독가구에 대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였다.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 연구에서 가장 현저한 애로는 자료수집상의 문제이다. 가족으로부터 분가한 젊은 이들이 세대주 등록이전을 하지 않게 되면 단독가구로 간주될 수가 없다. 노인가구의 경우에서도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이 취업이나 학업 등 타처로 이주하였다더라도 주민등록의 등재가 부모에게 되어 있으면 단독가구의 형성비율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세대주 전출과 같은 공식적, 현시적 기록의 미비로 인해 실제보다 단독가구수 계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단독가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방법도 마련되어야 되거니와 단독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욕구에 대한 연구조사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출산력저하와 단독가구 형성율의 증가간의 관계, 단독가구와 미혼율증가와의 유의성 검증, 단독가구의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심층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택, 소득등의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복지적 시각도 요구되며 앞으로 대도시의 미혼단독가구의 도시빈곤층 형성과, 농촌의 노인단독가구의 빈곤문제,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년단독가구에 대한 복지적 시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 參考文獻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 보고서; 전국편, 1982년, 1992년
- 공세권의,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전사회연구원, 1990.
- ,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조애저, 공세권, "최근 한국여성의 결혼행태", 1991 전국출산력조사 특별분석, 한국보전사회연구원, 1992.
- 이가옥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Christian, Patricia B., "Nonfamily Households and Housing among Young Adults",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Edited by F.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 Westview Press Inc., Boulder, San Francisco & London, 1989.
-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cond Demographic Survey on Changes in the Family Life Course and Household Structu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kyo, Japan, December 1992.
- Statistics Bureau/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Japan Statistical Yearbook, 1991.
- Statistics Information Department in Welfare Ministry/Welfare Statistics Association (후생성대신관방통계정보부/일본후생통계협회), National Life Survey(국민생활기초조사), 1988.

Stein, Peter J.,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8.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Single Lif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14 No.6,Nov./Dec., 1982

&lt;Abstract&gt;

## A Study on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Wha-Oak Bae\*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a lowered fertility level owing to the strong population control policy and effective family planning program. Along with fertility decline and decreased number of children in family,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as decreased and nontraditional households such as one person household and households composed of unrelated individuals have proliferated, even though the absolute number of them are found minimal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several data and survey results suggest that one person households are gradually in the increasing trend.

The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al stat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next analyzing the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by a few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us providing basic data for establishing far-sighted population and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high growth rate of economy through government-led development plans starting from the 1960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Korea has shifted from the agricultural state to the industrialized one.

In compliance with the economic growth, uri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brought about rural-to-urban migration and a great bulk of young population migrated to urban areas, who are seeking for educational and job opportunities. Korean society has also been under drastic change in every aspect of life involving norms, tradition, and attitude, etc. Therefore, in spite of the prejudice on 'living alone' still remaining, young people gradually leave parents and home, and further form nontraditional households in urban areas.

Curr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high female educational attainment and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the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changes from primary into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job opportunities for service/sales and manufacturing are opened to young female labor force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rary to the forma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by young people, the aged single households are composed when children in family leave one by one because of marriage, education, employment. In particular, a higher proportion of aged female single households occur in rural areas due to the mortality difference by sex.

Based on the data released from th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in 1985 and 1991,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stat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According to Census data, the number of one person households increased to 1,021,000 in 1990, comprising 9.0 percent of total households. And the survey reveals that among total 11,540 households, 8.0 percent, 923 households, are composed of one person households.

Generally, the proportion of female single households is greater than that of male ones, and a big proportion of one person households is concentrated in the 25-34 age bracket in urban areas and 65 years and more in rural areas. It is shown that one person householders in urban areas hav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with 59.2 percent high schooling and over in 1991. Job seeking proved to be the main reason for leaving home and forming one person households.

The number of young female single households with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self-reliance are found nil and the study did not allow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emale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one person household formation. However more research and deep analysis on the causal factors on one person household formation using statistical method are believed to be necessary.